韓國人의 初婚年齡 Pattern의 變動에 관한 人口學的 硏究

崔　　焞(東亞大學校　社會學科敎授)

目　　次

Ⅰ. 問題의 提起
Ⅱ. 資料 및 分析方法
Ⅲ. 主要分析結果
Ⅳ. 要約 및 結論

Ⅰ. 問題의 提起

흔히들 婚姻은 "人倫之大事"라고들 한다. 歷史的으로 볼때, 婚姻은 어느 社會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人間社會의 存續과 直結된 社會制度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컬어지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婚姻制度의 변동은 오래전부터 학자들 間에 많은 關心의 對象이 되어 왔다. 그러나 婚姻形態, 特히 婚姻의 年齡 pattern의 變動에 대한 체계적인 硏究가 이루어진 것은 극히 最近의 일이라 할 수 있다.

婚姻의 年齡패턴의 變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그 가운데 特히 婚姻年齡패턴이 지니는 중요한 意義를 우리는 社會學的, 人口學的, 그리고 社會政策的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初婚年齡의 변동이 지니는 社會學的意味는 初婚年齡이 家族의 生活週期(family life cycle)上의 家族形成의 時期를 뜻한다는 점이다. 어느 社會에서나 夫婦間의 初婚年齡은 多少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同質性(homogeneous)을 나타

낸다.[1] 이는 夫婦間의 年齡은 個人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時期別로 보면 그 差異는 일정한 pattern을 보여 주고 있음을 示唆한다. 그렇기 때문에 特定社會나 時代에 따라 普遍化되고 있는 男女間의 婚姻年齡패턴은 配偶者選擇의 範圍를 제약하는 市場構造를 形成하는 한 주요한 要素가 된다.[2] 따라서 男女間 婚姻年齡패턴의 變動은 婚姻의 當事者가 되는 個個人의 水準에서 보면 家族形成의 時期에 影響을 미치며, 그 結果는 夫婦間의 適應問題에 影響을 줄 뿐만 아니라, 子女出產에도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서 婚姻의 年齡패턴의 변동이 지니는 社會學的 의의는 人口學的意義와도 直結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特히 女子의 初婚年齡이 問題가 된다. 女子의 初婚年齡은 可姙狀態에 있는 婦人의 再生產期間 및 出產水準의 年齡 pattern에 影響을 주는 주요한 變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3] 뿐만아니라 婦人의 初婚年齡의 變動은 世代의 交替期間 (lengh of generation)에 影響을 줌으로써 直接的으로 그 社會의 人口成長에 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4] 初婚年齡패턴이 한 社會나 特定地域의 出

---

1) J. Ross Eshleman (1978), The Family : An Introduction, 2nd ed. Allyn and Bacon, Inc. (Boston) : 304 - 305

2) W. J. Goode (1964), The Family, Prentice - Hall : 32 - 33

3) R. Freedman (1973),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 An annotated bibliography, John Wiley & Sons, Inc. (N. Y.) : 13 - 20

4) A. J. Coale and C. Y. Tye (1961), "The significance of age-patterns of fertility in high fertility population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39. No. 4: 631-646: 한편 프랑스의 인구학자 Jean Fourastié는 1680 - 1725년간의 프랑스 인구의 분석을 통하여 높은 사망수준의 조건 아래서도 초혼연령은 인구성장과 세대별 대체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출생시 평균기대수명이 25세인 사망력 수준에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25세라면 세대별로는 약 10%의 인구감소를 초래하며, 평균초혼연령이 22.5세라면 세대당 약 6%의 인구성장을 초래한다고 한다. 그 밖에 그는 출생시 평균기대여명이 30세로 높아진다면, 평균초혼연령이 25세일 경우 세대별 인구성장률은 9%가 되며, 평균초혼연령이 22.5세라면 이 율은 34%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Fourastié, J. "De la vie traditionelle à la vie tertiare," Population, Vol. 14, No 3. 이 부분은 Judah Matras(1977), Introduction to Population: A Sociological Approach, Prentice - Hall : 159에서 재인용 하였음)

産水準에 미친 人口學的效果는 이미 19세기 西歐社會의 人口變遷(Population transition)의 經驗에서 이미 實證된 바 있으며,[5] 그 밖에 初婚年齡의 變動과 出産水準의 變動間의 관계를 다룬 여러 硏究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6] 마지막으로, 初婚年齡 pattern의 變動에 관한 情報는 社會政策의 樹立 등과 같은 실제적인 問題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높이 評價되고 있다. 例컨대, 初婚年齡패턴은 特定期間의 婚姻數를 推定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情報의 하나가 된다. 婚姻數의 推定은 一夫一妻制의 核家族을 社會的規範으로 하는 社會에서 住宅의 需要側面을 反映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初婚의 年齡패턴은 住宅政策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 밖에 私企業의 경우, 初婚年齡패턴은 勞動力供給과 市場分析의 한 要素로서 活用될 수 있다.[7]

初婚年齡 pattern이 지니는 이러한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이 分野에 대한 硏究는 出産力, 死亡力 및 人口移動에 관한 硏究에 比하여 비교적 늦게 人口學的分析에서 關心의 對象이 되었다. 初婚年齡 pattern이 世人의 關心事가 되기 始作한 것은 19세기초 英國의 經濟學者인 Thomas Robert Malthus가 그의 유명한 저서인 "人口論" 제 2판에서 人口成長의 억제를 위한 예방책의 하나로서 혼인의 연기(delayed marriage)를 지적하고 부터이다. Malthus의 이러한 주장은 그후의 많은 學者들에게 婚姻時期의 연구에 관심을 환기시키게 된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당분간 이 分野에 대한 체계적인 人口學的分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8] 初婚年齡이 人口學者들간에 본격적으로 分析對象이 된 것은 人口成長의 억제수단으로서 初婚年齡에 對한 관심보다는, 最近의 급격한 人口成長과 관련하여 人口成長의 要因

---

5) A.J. Coale (1971), Age Patterns of Marriage, Population Studies, 25, No. 2:193-214

6) Etienne Van de Walle(1972), "Marriage and Marital Fertility," D. Glass and R. Revells (eds), Population and Social Change, Edward Arnold(London) : 137-151; J.A.Palmore and A.B.Marzuki(1969), "Marriage Patterns and Cumulative Fertility in West Malaysia: 1966-1967," Demogrphy, 6, No. 4 : 383 - 401

7) H. Shryock et.al(1976). Methods and Materials for Demography : Condensed Edition by Edward G.Stockwell, Academic Press, Inc. : 335

8) J.Matras(1977), Introduction to Population: A Sociological Approach, Prentice-Hall (New Jersey) : 158

分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터이다.[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이 分野에 대한 人口學的分析은 그렇게 活潑한 편은 아니다. 그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1) 初婚年齡 pattern의 重要性에 대한 理解의 不足, (2) 人口動態申告資料의 不實로 인한 資料利用上의 制約, 및 (3) 分析方法, 特히 人口動態申告資料의 不實로 인하여 要求되는 間接推定을 위한 分析技術上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는 것 같다. 特히 이 가운데서 이 分野 硏究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뒤의 두가지 問題點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初婚年齡패턴에 대한 人口學的硏究는 대체로 各 年齡集團別 婚姻의 發生빈도, 未婚率 및 初婚年齡의 變動과 差別的現象의 비교분석이라는 측면에서 接近되고 있다.[1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석은 人口動態資料의 不實로 인하여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人口動態申告資料는 特히 婚姻申告의 경우 더욱 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연령별혼인율을 推定하여 제시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年齡別婚姻率과 같은 統計는 주로 센서스 資料를 이용한 간접추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한편 初婚年齡은 센서스 資料外에 標本調査로 실시되는 出産力調査資料를 利用하여 測定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도 各資料間에 比較의 準據가 되는 人口의 年齡構造上의 差異로 直接的인 比較에는 難點이 있다. 더우기 이 資料는 1960年代중반부터 수집·집계하기 始作했으므로,[11] 1960年代以前의 센서스資料分析結果 提示되는 推定値와 비교하여 그간의 변동상태를 관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센서스資料를 통한 婚姻動態의 分析은 주로 24세以下의 低年齡層의 경우 有配偶比率을, 그리고 45세以上의 高年齡層에 대해서는 未婚比率의 변동을

---

9) D. J. Bogue(1969), Principles of Demography, John Wiley & Sons (N.Y.) : 312-313

10) D. J. Bogue (1969), ibid : 314

11)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전국규모의 출산력조사는 1968년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한 것을 효시로 하여, 보건사회부산하 가족계획연구원에서 1971, 1973, 1974, 1976, 1978년에 이르기까지 전후 6차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그 밖에 1982년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이를 승계하여 전국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실태조사란 이름아래 출산력에 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실시되었다.

比較分析하는데 그치고 있다. 24세以下의 有配偶比率은 初婚年齡動態의 변동을, 그리고 45세以上의 高年齡層의 未婚比率은 一生동안 한번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게 될 人口比率의 변동을 反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分析은 一年동안 일어나고 있는 婚姻의 發生件數 또는 婚姻의 年齡patten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는 充分한 情報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처럼 婚姻의 年齡 pattern의 分析이 特定年齡層의 有配偶比率 혹은 未婚比率의 變動의 比較에만 그치고 마는 것은 센서스資料의 未婚比率을 基礎로 한 婚姻動態率의 間接推定方式에 대한 理解의 결여에서 주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人口學的與件의 變化와 더불어 婚姻年齡패턴의 變動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50年代후반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주요한 人口學的現象의 하나는 「베이비·붐」이다.[12] 그 당시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이라는 人口學的現象에 의하여 年平均 3.0%라는 높은 人口成長率을 示顯했다. 그러나 「베이비·붐」現象은 그당시의 높은 人口成長率의 示顯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붐」시기에 태어난 女兒들은 1970年代後半에는 거의 대부분이 20-24세로서 婚姻適齡期에 到達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通常 夫婦間의 年齡差異가 3-4세인 점을 감안한다면,[13] 「베이비·붐」시기에 태어난 女性들의 潛在配偶者는 대체로 24-28세의 男子人口로서 그 대부분이 6.25전쟁의 와중에서 태어난 cohort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들 男女 두 cohort간의 人口數의 差異는 1970년대후반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動態에 상당한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29-32年은 大恐慌으로 급격한 出產力의 低下를 초래하였다. 그 당시 美國에서는 男女間의 婚姻이 通常 2-3세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29-32年의 대공황으로 인한 급격한 出產力低下는 20年 뒤인 1950年代初에 극심한 marriage squeeze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1929-32年 cohort의 女性들의 잠재적인 배우자는 1929-32年에 비해 出產水準이 상당히 높았던 1927-29年에 태어난 男子 cohort가 된다. 따라서 1927-29年

12) Tai-Hwan, Kwon et al. (1973), Population of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 Seoul National University : 472

1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1), 인구동태표본조사보고서 : 12

cohort의 男子들은 新婦의 不足으로 종전의 婚姻行態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경우 이들이 택했던 適應은 일시적이던 혹은 영구적이던 간에 婚姻을 延期하거나 종전과는 다른 pattern (特히 配偶者간의 年齡差異같은) 속에서 配偶者를 선택하였다고 한다.[14] 美國의 이러한 經驗은 1950年代後半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베이비·붐」의 人口學的 影響을 연구하고자 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最近 우리나라에서는 婚姻行態의 變動과 관련된 人口學的分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제 문제들을 감안하여 本 稿에서는 먼저 센서스의 年齡別·配偶關係資料를 土台로 婚姻率을 間接的으로 推定하고, 推定된 婚姻率을 利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動態의 변동을 比較分析할 수 있는 技法의 하나로서 센서스 未婚人口比率에 의한 婚姻表(singulate nuptiality table) 작성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本 稿에서는 이 方法을 土台로 1925-1980년間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行態의 변동패턴을 人口學的側面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 경우, 特히 最近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行態의 변동패턴은 1950年代의 「베이비·붐」현상과 어떠한 관계를 함축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유의하여 분석될 것이다.

Ⅱ. 資料 및 分析方法

1. 資 料

우리나라에서 婚姻動態에 관한 分析은 人口動態申告資料의 不實로 인한 資料利用上의 制約으로 주로 센서스資料를 利用한 間接推定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감안하여 本 稿에서는 센서스보고서에 集計된 年齡別配偶狀態別人口資料를 利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初婚行態에 관한 年齡pattern의 변동을 分析키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25年 처음으로 人口센서스가 실시된 이래, 지난 1980年까지 전후 11차에 걸쳐 人口 및 住宅센서스가 실시된 바 있다. 多幸히

14) J.Matras(1977), op.cit : 169-170

1925年以來, 配偶狀態에 관한 調査項目은 센서스 調査票의 주요한 項目의 하나로 포함되어 왔고, 每 센서스結果報告書에서는 年齡別配偶狀態別人口分布가 集計·報告되고 있다. 그러나 本 稿에서 分析될 센서스資料는 本 硏究의 硏究目的과 方法論上의 制約點을 고려하여 1925年, 1930年, 1955年, 1960年, 1970年, 1975年 및 1980年에 실시된 센서스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本 硏究에서는 基本的으로 두 센서스年間에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性別·年齡別未婚人口比率을 推定하고, 이를 근거로 婚姻패턴(nuptiality pattern)의 변동상태를 比較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925年以來, 우리나라에서 發表된 各 센서스資料를 보면 年齡階級을 5歲間隔으로 集計하고 있다.[15] 따라서 두 센서스年間에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未婚人口 cohort는 두 센서스年間의 간격이 5年인 경우에만 資料의 利用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센서스資料의 分析과 관련하여 提起되는 또 하나의 制約點은 센서스 結果報告書에 發表된 配偶狀態別人口資料의 製表樣式과 관련된다. 1925年以來 우리나라에서 發表된 센서스報告書를 보면, 年齡階級別配偶狀態別人口分布에 관한 資料의 製表樣式이 센서스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例컨대, 1935年 센서스의 경우 年齡別配偶關係資料는 利用이 가능하나, 이 報告書는 配偶關係資料를 産業別로 提示하고 있을 뿐, 다른 센서스에서 처럼 全國, 市, 郡部別 配偶關係人口資料는 提示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25年센서스에서 配偶狀態別人口資料를 利用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追加作業을 要하게 된다. 이러한 制約點을 고려하여 本 稿에서는 1925-30年, 1955-60年, 1970-75年 및 1975-80年의 4개 期間에 대해서만 婚姻패턴(nuptiality pattern)을 比較分析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4개 센서스年間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 資料를 직접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바는 아니다. 그것은 주로 各 센서스의 基準集計時點과 센서스의 coverage와 관련된다. 基準集計時點의 경우, 두 센서스間의 差異는 클 경우 1個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도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資料의 補正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1960年 센서스의 경우, 年齡集計를 다른 센서스와는 달리 「세는 나이」로 集計하고 있다. 따라서 1960年센서스는 다른 센서스에 比해 年齡別資料는 coverage 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5) 정확히 말해서 1960년 이후의 센서스결과보고서는 5세 계급별 인구뿐만 아니라 각 세별인구도 동시에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전의 인구센서스보고서에서는 특히 배우상태별인구자료의 경우 5세 계급별 인구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두 기간별 자료의 분석에서는 다소의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1960年센서스資料는 세는 나이를 만 나이(滿年齡)로 換算해서 集計한 年齡別配偶狀態別人口資料[16]를 利用하기로 하였다.

2. 分析方法

일반적으로 初婚의 年齡패턴의 變動에 관한 硏究는 두가지 측면에서 接近된다.[17] 하나는 센서스資料의 年齡別配偶狀態別人口資料를 活用하여 年齡別有配偶比率의 변동을 比較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標本調査나 人口動態申告資料를 利用하여 旣婚夫婦들이 실제로 婚姻했을 당시의 年齡을 基礎로 平均初婚年齡(crude mean age at marriage)을 계산하여 그 변동을 알아보는 方法이다. 전자의 경우, 센서스資料의 男女間 年齡別有配偶比率의 比較를 通하여 初婚年齡의 變動類型 및 일생동안 한번도 婚姻하지 않고 未婚으로 보내는 사람들의 比率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 경우, 24歲以下의 低年齡階級의 有配偶比率의 減少는 初婚年齡의 上昇現象을 反映한다고 볼 수 있으며, 45세 이상의 高年齡階級의 未婚比率은 一生을 獨身으로 보내는 人口의 比率을 나타내준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이 方法은 (1) 各센서스에서 集計되고 있는 人口의 年齡構造가 심하게 변동하는 경우, 比較의 基礎가 되는 標準化의 문제로, (2) 그리고, 有配偶 혹은 未婚人口比率에 대한 直接的인 관찰은 24세이하의 低年齡階級과 45歲以上의 高年齡階級以外의 年齡階級에서의 婚姻패턴(nuptiality pattern)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標本調査資料나 人口動態申告資料를 사용하여 計算되는 平均初婚年齡(crude mean age at marriage)은 各 出生 cohort 別 分析을 通하여 比較的 쉽게 初婚年齡의 변동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이 接近方法은 적절한 標本調査資料가 없다거나, 人口動態申告資料가 不實한 경우, 적용이 매우 어렵다. 더우기 標本調査資料가 利用가능한 경우도 標本調査가 retrospective한 측면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死亡力效果(mortality effect)가 作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資料를 利用하여 계산되는 平均, 또는 中位初婚年齡 역시 nuptiality pattern의 변동을 관찰

16) 家族計劃硏究院 (1978), 人口 및 家族計劃統計資料集 vol. 1

17) D.J. Bogue (1969), op.cit

하는 데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Hajnal은[18] 센서스資料의 性別·年齡別·配偶關係人口比率을 利用하여 初婚年齡(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을 간접추정하는 方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方法에 의해 推定되는 初婚年齡은 標本調査資料에 의해 계산되는 平均初婚年齡(crude mean age at marriage)에 比해 死亡力效果를 除去할 수 있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方法에 의해 推定되는 初婚年齡은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性別·年齡別未婚人口比率에 婚姻과 관련하여 各年齡階級의 人口가 경험했던 過去의 結果가 누적적으로 反映되고 있기 때문에, 婚姻pattern에 심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有用한 初婚年齡의 指標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9] 그 밖에 Hajnal의 平均初婚年齡(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은 初婚의 年齡패턴을 볼 수 있는 유용한 單一指標이기는 하지만, 各年齡階級間의 初婚行態에 관한 力動的인 面을 관찰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Mertens는[20] 센서스와 人口動態申告資料를 土臺로 먼저 初婚과 관련된 動態率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婚姻패턴의 分析에 停止人口(stationary popula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死亡力의 生命表(life table)에 상응하는 婚姻表(nuptiality table)를 작성하는 方法을 제시함으로써 婚姻의 年齡패턴의 分析에서 分析對象이 되는 人口間에 年齡構造의 標準化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Mertens의 이 方法은 어디까지나 人口動態申告資料의 正確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 資料의 精度(accuracy)가 낮은 것으로 評價되는 나라에서는 그 節次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Shryock등은[21] Hajnal의 平均初婚年齡算出에 바탕이 된 센서스資料의 年齡階級別·配偶狀態別人口가운데 未婚人口比率을 活用하여 간접적으로 各 年齡階級間의 婚姻確率(Nuptiality Probability)을 推定하는 方法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李興卓[22]등

---

18) J.Hajnal (1953),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 Single," Population Studies, 7(2) : 111 - 136

19) Peter C.Smith (1978), "Index of Nuptiality: Asia and the Pacific," Asian and Pacific Census Forum, Vol.15, No.2,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20) Walter Mertens (1965), "Methodological Aspects of the Construction of Nuptiality Tables," Demography, vol.2 : 317 - 340

21) H.Shryock, et. al.(1976), op.cit

이 1960 - 75年間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센서스資料를 土台로 이 方法을 利用하여 韓國人의 婚姻表(nuptiality table)의 作成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李등의 硏究에서 活用된 資料는 特定센서스時點에 집계된 未婚人口比率이다. 따라서 그 硏究는 Hajnal의 平均初婚年齡과 마찬가지로 婚姻의 年齡패턴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過去의 累積된 經驗을 除去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Agawala는[23] 인접하는 두 센서스間의 未婚比率을 산출하고, 이를 土台로 生殘率의 槪念을 導入·適用하여 두 센서스年間에 存在했을 것으로 가상되는 各 年齡別未婚比率을 推定하고, 이를 근거로 婚姻確率(nuptiality probability)을 推定하는 方法과 節次를 提示하고 있다. 한편, 最近에는 센서스結果報告書에 제시된 未婚人口資料를 利用한 이상의 間接推定方法과 더불어 센서스調査票에 初婚年齡에 관한 項目을 추가함으로써 센서스 當時의 年齡과 初婚年齡間의 交叉製表(crosstable)을 만들고, 이에 Lexis Diagram技法을 적용함으로써 Period base의 年齡別婚姻率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추정할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24] 우리나라에서는 1975年센서스부터 初婚年齡에 관한 項目을 追加하여 集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75年以後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패턴은 이 資料를 利用하여 쉽게 分析될 수 있다. 그러나 그 以前 시기의 婚姻패턴을 이 方法을 적용하여 관찰하는 데는 제약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諸問題를 고려하여 本 稿에서는 1925年以來,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는 인접한 두 센서스資料를 利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年齡패턴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가 하는 問題를 관찰하여 보기로 하였다. 即 本 稿에서 婚姻年齡패턴은 다음과 같은 節次를 거쳐 관찰되었다. (1) 센서스資料의 未婚人口比率을 性別로 계산한 다음, (2) Agawala의 方法에 따라 두 센서스期間中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적인 未婚人口比率을 推定한다. (3) 두 센서스年間의 假想未婚比率을 근거로 各 年齡集團에서 일

22) 李興卓·韓大愚 (1977), 初婚年齡과 出産力間의 相關關係에 관한 硏究, 家族計劃硏究院.

23) S.N.Agawala (1962), Age at Marriage in India, Allahabad : Kitab Mahal.
本 稿에서는 Peter C. Smith (1978), op. cit에서 소개한 것을 인용하였음.

24) R. Retherford (1978), Nuptiality Table, unpublished mimeograph.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어나는 婚姻確率(nuptiality rate)을 推定하며, (4) 이를 土台로 두 센서스年間의 婚姻表(singulate nuptiality table)를 구성하여 韓國人의 婚姻年齡패턴의 변동을 比較分析키로 하였다. 동시에 本 稿에서는 두 센서스年間의 各 年齡集團에서 일어나는 婚姻確率을 근거로 期間別 年齡別 婚姻率(central marriage rate)을 推定함으로써 各 期間別로 婚姻의 發生이 어떠한 變化를 보이고 있는가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세부절차 및 공식 : 부록 I 및 II 참조)

Ⅲ. 主要分析結果

1. 婚姻動態 : 1925-1980

〈表 - 1〉과 〈表 - 2〉는 各各 1925 - 30, 1955 - 60, 1970 - 75 및 1975-80年에 이르는 4期間동안 男·女間 年齡別婚姻率의 變動趨勢를 보여 준다. 〈表 - 1〉과 〈表 - 2〉를 통하여 1925 - 80年間 婚姻率의 변동과 관련하여 관찰되는 주요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보아 年齡別婚姻率은 1925 - 30年以後 各比較期間中 계속적인 低下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性別로 보면 1925 - 30年에는 男子보다는 女子쪽이 훨씬 높은 婚姻率을, 1955 - 60年에는 비슷한 수준을, 그리고 1970 - 75年以後는 女子보다는 男子쪽이 약간 높은 水準을 보여준다.(표 - 1 및 표 - 2 참조)

(2) 그러나 年齡別로 보면, 男女모두 20세미만의 低年齡層에서의 婚姻率의 현저한 低下現象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男子의 경우, 〈表 - 1〉에 의하면, 1925 - 30年에는 10 - 14세 연령에서 每年 未婚人口 1000名중 30.85名꼴로 婚姻이 일어나던 것이 1955 - 60年이후는 거의 婚姻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5 - 19세 年齡에서만 해도 1925 - 30年에는 未婚人口 1000名중 92.54명이 每年 婚姻했었으나 1955 -60年에는 12.96명, 그리고 1970年以後는 7名內外로 급격히 그 率이 떨어지고 있다. 女子의 경우 역시 20세미만의 低年齡에서 관찰되는 婚姻率의 변동유형은 男子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女子의 경우 20세미만의 低年齡에서 일어나는 婚姻率은 男

子에 比해 훨씬 높다. 예컨대, 20세 미만의 年齡에서 婚姻率은 급격한 低下現象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1975 - 80年間만 하더라도 〈表 - 1〉 및 〈表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 - 19세 미혼남자의 경우 혼인율은 7명 미만이나 未婚女子의 경우는 그 率이 36.65名이나 된다.

(3) 한편 低年齡에서 와는 달리, 通常 婚姻의 適期를 지났다고 볼 수 있는 高年齡層의 男女間婚姻率의 變動類型은 20세미만의 低年齡層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表 - 1〉을 보면 1925 - 30年에는 男子의 경우 婚姻率은 25 - 29세를 頂點으로 하여 年齡이 높아짐에 따라 婚姻率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동 기간중 女子의 婚姻率은 20 - 24세의 피-크를 지난 후에도 떨어지기는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以後는 다시 年齡이 높아짐에 따라 婚姻率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表 - 2참조) 그러나, 1955 - 60年以後 女子의 年齡別婚姻率은 男子의 年齡別婚姻率의 변동과 비슷한 유형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表 - 1 및 表-2 참조) 한편 婚姻率의 水準을 性別로 比較해 보면, 20세미만의 低年齡에서 와는 달리 女子보다는 男子쪽이 훨씬 높다. 일례로 35 - 39세 年齡에서 일어난 婚姻率을 보면, 女子의 경우 1955 - 60, 1970 - 75 및 1975 - 80年期間에 各各 1000名의 未婚女性중 220.69, 123.03 및 91.03名인데 反해, 男子의 경우는 해당기간중 婚姻率이 各各 291.70, 238.86 및 198.39名으로 女子에 比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4) 마지막으로 最近 (1970 - 75年 및 1975 - 1980年間)의 年齡別婚姻率의 변동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과는 약간 다른 類型을 관찰해 볼 수 있다. 대체로 보아 年齡別婚姻率은 男女모두 低下趨勢를 示顯해 준다. 그러나1970-75年 및 1975 - 80年間의 年齡別婚姻率을 보면 女子의 경우 두기간중 婚姻率은 떨어지는 趨勢에 있으나, 男子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와 같은 경향은 特히 20 - 24세 및 30 - 34세 年齡에서 관찰될 수 있는 바, 이 두 年齡에서 男子의 婚姻率은 오히려 높아 졌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1970 -75年의 20 - 24세未婚男子의 婚姻率은 未婚男子人口 1000名중 63.17이었으나, 1975 -80年에는 그 率이 110.55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30 - 34세 年齡에서는 1970 - 75年의 284.89이던 것이 1975 - 80 年에도 280.08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Table-1 Trends in Age-Specific First Marriage Rates* for Male Population:1925-30, 1955-60, 1970-75, and 1975-80

Age	1925-30	1955-60	1970-75	1975-80
10 - 14	30.85	1.75	-	-
15 - 19	92.54	12.96	7.24	6.74
20 - 24	158.74	83.32	63.17	110.55
25 - 29	205.52	207.44	175.20	137.32
30 - 34	169.96	308.54	284.89	280.08
35 - 39	118.87	291.70	238.86	198.39
40 - 44	120.53	236.73	121.37	69.44
45 - 49	161.41	215.39	38.87	1.79

* estimated from singulate age-specific nuptiality rates.

Table-2. Trends in Age-Specific First Marriage Rates* for Female Population: 1925-30, 1955-60, 1970-75 and 1975-80

Age	1925-30	1955-60	1970-75	1975-80
10 - 14	80.05	7.17	-	-
15 - 19	227.27	78.49	41.76	36.65
20 - 24	331.12	204.74	143.40	135.84
25 - 29	257.70	301.47	262.69	253.79
30 - 34	272.07	293.81	235.93	218.66
35 - 39	301.23	220.69	123.03	91.03
40 - 44	400.00	177.78	45.59	24.41
45 - 49	-	100.00	0.00	8.16

* estimated from singulate age-specific nuptiality rates.

2. 婚姻表에 의한 初婚의 年齡 Pattern

1) 婚姻表(Nuptiality Table)

婚姻表는 死亡에 대한 生命表(life table)와 유사한 것으로서 한 人口의 婚姻習性(marriage habit)을 分析하기 위한 人口學的모델의 하나이다. 즉 婚姻表는 (1) 閉鎖人口(closed population)를 前提로 할때, (2) 한 社會의 人口가 特定時點에서 관찰된 年齡別婚姻率의 schedule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3) 婚姻適齡期에 到達한 特定한 數의 未婚人口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줄어드는 과정을 統計的으로 묘사하고 있는 人口學的 model을 말한다.[25] 그러나 婚姻表는 生命表의 경우와는 달리 두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바, 粗婚姻表(Gross Nuptiality Table)와 純婚姻表(Net Nuptiality Table)가 그것이다. 粗婚姻表는 特定한 數(通常 radix 100,000名)의 未婚者數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婚姻에 의하여 어떻게 줄어가고 있으며, 安定人口(stable population)를 假定한 狀態에서 各 年齡別로 未婚狀態에서 보내게 되는 期間을 제시해 주는 人口學的 model이다. 이에 반해, 純婚姻表는 粗婚姻表와 유사하나 年齡의 增加에 따라 特定한 코호트의 人口가 줄어드는 데는 婚姻뿐만 아니라 死亡에 의해서도 줄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年齡別死亡率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粗婚姻表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純婚姻表는 結婚數의 推定 등과 같은 목적의 mathematical model로서 유용하게 利用될 수 있으며, 粗婚姻表는 여러 人口間의 nuptiality pattern을 比較하고자 하는 목적의 硏究에서 자주 利用된다.[26] 粗婚姻表가 여러 人口間婚姻類型의 比較硏究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은 年齡別死亡率을 확인할 수 없는 狀況에서도 쉽게 적용하여 人口間의 婚姻習性의 差異를 比較觀察할 수 있는 利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것이던, 婚姻表는 生命表와 마찬가지로 停止人口(stationary population)을 가정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여러人口間의 婚姻의 年齡 pattern을 비교하고자 할 때, 年齡構造의 差異로 인한 영향을 排除할 수 있다. 이 점으로 인하여 婚姻表는 時間의 경과에 따른 婚姻의 年齡 pattern의 變動을

---

25) W. Mertens (1965), op.cit. : 317-340

26) C. R. Malaker (1973), "Construction of Nuptiality Tables for the Single Population in India : 1901-1931", Demography, Vol.10, No.4 : 525

比較하고자 할 때, 有用하게 사용할 수 있는 技法의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本 稿에서는 센서스資料를 利用하여 1925-30, 1955-60, 1970-75 및 1975-80 年間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表를 男女別로 作成하였다. 〈表 - 3〉 과 〈表 - 4〉는 각각 동 기간중 男女別 簡易粗婚姻表(Abridged Singulate Gross Nuptiality Table)을 보여 주며,〈表 - 5〉, 〈表 - 6〉 및 〈表 - 7〉은 各各 1955-60, 1970-75 및 1975-80年 期間中 관찰된 男女別 簡易純婚姻表(Abridged Singulate Net Nuptiality Table)이다.[27] 1925-30 年期間의 경우, 純婚姻表를 作成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의 年齡別死亡水準과 관련된 적절한 資料가 없었기 때문에 不可避했다. 한편 〈表 - 3〉 ~ 〈表 - 7〉에 提示된 簡易婚姻表의 각 칼럼이 지칭하는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_5{}^nx$: 年齡 x歲에 도달한 未婚의 人口가 年齡 x + 5 歲에 도달할 때 까지 婚姻할 確率 (生命表의 $_5{}^qx$칼럼에 해당함)

Sx : 年齡 x歲에 到達할 때 特定한 數의 코호트가 미혼으로 남게 되는 사람의 수(生命表의 lx에 해당함)

$_5L_x^S$: 年齡 x歲에 到達한 特定코호트의 人口가 x + 5 歲에 到達하기 까지 未婚인 狀態로 산 人 - 年數 (person-years) (生命表의 $_5L_x$ 칼럼에 해당함)

T_x^S : 年齡 x歲以後에 未婚인 狀態로 살게 될 총 人 - 年數 (total person -years) (生命表의 Tx칼럼에 해당함)

e_x^S : 年齡 x歲以後 未婚인 狀態로 살게 될 平均期待未婚年數 (生命表의 e_x 칼럼에 해당함)

※이상의 각 칼럼에 해당하는 純婚姻表상의 칼럼은 * 표를 표시하여 구분하고 있음. 그 밖에 純婚姻表상에 제시된 칼럼중 ;

$_5q_x$: 純婚姻表를 작성하기 위해 활용한 生命表상의 $_5q_x$値로서 특정연령 x歲에 도달한 사람이 x + 5 歲가 될 때 까지 죽게될 死亡確率을 의미함.

$_5d_x^{S*}$: 年齡 x歲에 도달한 사람중 x + 5 歲에 도달하기 전에 未婚인 상태

---

27) 粗婚姻表 및 純婚姻表를 각각 Singulate Gross 또는 Net Nuptiality Table이라고 한 것은 本 稿에서 작성한 婚姻表가 婚姻動態統計를 이용하여 집계한 年齡別婚姻率을 土臺로 작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센서스資料의 未婚人口比率을 土臺로 간접추정된 年齡別婚姻率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부쳐진 것임.

로 죽게 되는 사람수.

$_5m^*_x$: 年齡 x 歲에서 x + 5 歲사이에 처음으로 혼인하게 되는 사람의 數.

이상에 提示된 婚姻表들 토대로 관찰된 1925-80年間 우리나라 사람들의 몇가지 중요한 初婚年齡패턴의 변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3 Gross Singulate Nuptiality Tables for Single Males for Four Period:1925-30, 1955-60, 1970-75 and 1975-80

X	$_5{}^{n}x$	^{s}x	$_5L^s_x$	T^s_x	e^s_x
			1925-1930		
0	-	100,000	500,000	2,126,777.5	21.27
5	-	100,000	500,000	1,626,777.5	16.27
10	.14322	100,000	464,195	1,126,777.5	12.27
15	.37578	85,678	347,900	662,582.5	7.73
20	.56821	53,482	191,437.5	314,682.5	5.88
25	.67884	23,093	76,275	123,245	5.34
30	.59540	7,417	26,045	46,970	6.33
35	.48519	3,001	11,567.5	20,925	6.97
40	.46296	1,626	6,247.5	9,257.5	5.75
45	.57471	873	3,110	3,110	6.20
50		371			
			1955-1960		
0	-	100,000	500,000	2,626,035	26.26
5	-	100,000	500,000	2,126,035	21.26
10	.00870	100,000	497,825	1,626,035	16.26
15	.06277	99,130	480,095	1,128,210	11.28
20	.34478	92,908	384,457.5	648,115	6.98
25	.68299	60,875	200,432.5	263,657.5	4.33
30	.87092	19,298	54,472.5	63,225	3.28
35	.84334	2,491	7,202.5	8,752.5	3.51
40	.74359	390	1,225	1,550	3.97
45	.70000	100	325	325	3.25
50		30			

Table-3 Continued

X	$_5n_x$	s_x	$_5L_x^s$	T_x^s	e_x^s
			1970-1975		
0	-	100,000	500,000	2,753,287.5	27.53
5	-	100,000	500,000	2,253,287.5	22.53
10	-	100,000	500,000	1,753,287.5	17.53
15	.03555	100,000	491,112.5	1,253,287.5	12.53
20	.27277	96,445	416,452.5	762,175	7.90
25	.60917	70,136	243,867.5	345,722.5	4.93
30	.83193	27,411	80,045	101,855	3.72
35	.74783	4,607	14,422.5	21,710	4.71
40	.46552	1,162	4,457.5	7,287.5	6.27
45	.17742	621	2,830	2,830	4.56
50		511			
			1975-1980		
0	-	100,000	500,000	2,681,462.5	26.81
5	-	100,000	500,000	2,181,462.5	21.81
10	-	100,000	500,000	1,681,462.5	16.81
15	.03313	100,000	491,717.5	1,181,462.5	11.81
20	.43307	96,687	378,755	689,745	7.13
25	.51114	54,815	204,030	310,990	5.67
30	.82368	26,797	78,805	106,960	3.99
35	.66314	4,725	15,792.5	28,155	5.96
40	.29560	1,592	6,782.5	12,362.5	7.77
45	.00893	1,121	5,580	5,580	4.98
50		1,111			

Table-4。 Gross Singulate Nuptiality Tables for Single Females for Four Periods:1925-30, 1955-60, 1970-75 and 1975-80

X	$_5n_x$	s_x	$_5L_x^s$	T_x^s	e_x^s
			1925-1930		
0	-	100,000	500,000	1,684,915	16.85
5	-	100,000	500,000	1,184,915	11.85
10	.33505	100,000	416,237.5	684,915	6.85
15	.72464	66,495	212.012.5	268,677.5	4.04
20	.90584	18,310	50,085	56,665	3.09
25	.78363	1,724	5,242.5	6,580	3.82
30	.81081	373	1,110	1,337.5	3.59
35	.85914	71	202.5	227.5	3.20
40	1.00000	10	25	25	2.50
45		0			
			1955-1960		
0	-	100,000	500,000	2,179,095	21.79
5	-	100,000	500,000	1,679,095	16.79
10	.03520	100,000	491,200	1,179,095	11.79
15	.32808	96,480	403,267.5	687,895	7.13
20	.67711	64,827	214,397.5	284,627.5	4.39
25	.85953	20,932	59,680	70,230	3.36
30	.84694	2,940	8,475	10,550	3.59
35	.71111	450	1,450	2,075	4.61
40	.61538	130	450	650	5.00
45	.40000	50	200	200	4.00
50		30			

Table-4. Continued

X	$_5n_x$	s_x	$_5L_x^s$	T_x^s	e_x^s
			1970-1975		
0	-	100,000	500,000	2,409,260	24.09
5	-	100,000	500,000	1,909,260	19.09
10	-	100,000	500,000	1,409,260	14.09
15	.18908	100,000	452,730	909,260	9.09
20	.52780	81,090	298,460	456,530	5,63
25	.79280	38,292	115,565	158,070	4.13
30	.74202	7,934	24,952.5	42,505	5.36
35	.47030	2,047	7,827.5	17,552.5	8.57
40	.20561	1,084	4,862.5	9,725	8.97
45	.00000	861	4,862.5	4,862.5	5.65
50		861			
			1975-1980		
0	-	100,000	500,000	2,450,055	24.50
5	-	100,000	500,000	1,950,055	19.50
10	-	100,000	500,000	1,450,055	14.50
15	.16786	100,000	458,035	950,055	9.50
20	.50703	83,214	310,590	492,020	5.90
25	.77636	41,022	125,490	181,430	4.42
30	.70692	9,174	29,657.5	55,940	6.10
35	.37079	2,689	10,952.5	26,282.5	9.77
40	.11310	1,692	7,980	15,330	9.06
45	.04027	1,500	7,350	7,350	4.9
50		1,440			

Table-5 Net Nuptiality Table for Population for the Period of 1955-1960

Age x	$_5n_x$	$_5q_x$	s_x^*	$_5d_x^{s*}$	$_5m_x^*$	$_5L_x^{s*}$	T_x^{s*}	e_x^{s*}
Males								
0		.14870	100,000	14,870		462,825	2,219,302.5	22.2
5		.01447	85,130	1,232		422,570	1,756,477.5	20.6
10	.00870	.00993	83,898	833	723	415,602.5	1,333,907.5	15.9
15	.06277	.01375	82,432	1,132	5,098	396,140	918,305	11.2
20	.34478	.01873	76,113	1,426	25,751	312,625	522,165	6.9
25	.68299	.02518	48,936	1,232	32,582	160,150	209,540	4.3
30	.87092	.03357	15,123	508	12,729	42,525	49,390	3.3
35	.84334	.04445	1,887	84	1,520	5,422.5	6,865	3.6
40	.74359	.05859	282	17	198	875	1,442.5	5.1
45	.70000	.07695	68	5	44	217.5	567.5	8.4
50		.10079	19	2		90	350	18.4
55		.13918	17	2		80	260	15.3
60		.18884	15	3		67.5	180	12.0
65		.26333	12	3		52.5	112.5	9.4
70		.36803	9	3		37.5	60	6.7
75		.50107	6	3		22.5	22.5	3.8
80+		1.00000	3	3				

Table 5. Continued

Age x	$_5n_x$	$_5q_x$	s_x^*	$_5d_x^{s*}$	$_5m_x^*$	$_5L_x^{s*}$	T_x^{s*}	e_x^{s*}
Females								
0		.12964	100,000	12,964		467,590	1,896,600	19.0
5		.01330	87,036	1,158		432,285	1,429,010	16.4
10	.03520	.01000	85,878	859	2,992	419,762.5	996,725	11.6
15	.32808	.01510	82,027	1,239	26,505	340,775	576,962.5	7.0
20	.67711	.02050	54,283	1,113	36,002	178,627.5	236,187.5	4.4
25	.85953	.02210	17,168	379	14,430	48,815	57,560	3.4
30	.84694	.03150	2,358	74	1,934	6,770	8,745	3.7
35	.71111	.04200	350	15	238	1,177.5	1,975	5.6
40	.61538	.05380	97	5	56	330	857.5	8.8
45	.40000	.06770	35	2	13	137.5	527.5	15.1
50		.08190	20	2		95	390	19.5
55		.10960	18	2		85	295	16.4
60		.15490	16	2		75	210	13.1
65		.22530	14	3		62.5	135	9.6
70		.32530	11	4		45	72.5	6.6
75		.45050	7	4		27.5	27.5	3.9
80+		1.00000	4	4				

Table-6. Net Nuptiality Table for Single Population for the Period of 1970-1975

Age x	${}_5n_x$	${}_5q_x$	s_x^*	${}_5d_x^{s*}$	${}_5m_x^*$	${}_5L_x^{s*}$	T_x^{s*}	e_x^{s*}
Males								
0		.07086	100,000	7,086		482,285	2,546,245	25.5
5		.00690	92,914	641		462,967.5	2,063,960	22.2
10		.00527	92,273	486		460,150	1,600,992.5	17.4
15	.03555	.00894	91,787	821	3,234	448,797.5	1,140,842.5	12.4
20	.27277	.01265	87,732	1,110	23,628	376,815	692,045	7.9
25	.60917	.01312	62,994	826	37,871	218,227.5	315,230	5.0
30	.83193	.01476	24,297	359	19,915	70,800	97,002.5	4.0
35	.74783	.01871	4,023	75	2,952	12,547.5	26,202.5	6.5
40	.46552	.03517	996	35	447	3,772.5	13,655	13.9
45	.17742	.04811	513	25	87	2,287.5	9,882.5	19.3
50		.07159	402	29		1,937.5	7,595	18.9
55		.01088	373	40		1,765	5,657.5	15.2
60		.18182	333	61		1,512.5	3,892.5	11.7
65		.28650	272	78		1,165	2,380	8.8
70		.38791	194	75		782.5	1,215	6.3
75		.54802	119	65		432.5	432.5	3.6
80+		1.00000	54	54				

Table - 6. Continued

Age x	5^nx	5^qx	s_x^*	$5^{d_x^{s*}}$	$5^{m_x^*}$	$5^{L_x^{s*}}$	T_x^{s*}	e_x^{s*}
Females								
0		.05733	100,000	5,733		485,667.5	2,280,192.5	22.8
5		.00572	94,267	539		469,987.5	1,794,525	19.0
10		.00441	93,728	414		467,605	1,324,537.5	14.1
15	.18908	.00708	93,314	660	17,519	421,122.5	856,932.5	9.2
20	.52780	.00936	75,135	703	39,285	275,705	435,810	5.8
25	.79280	.01097	35,147	389	27,559	105,875	160,105	4.6
30	.74202	.01310	7,203	94	5,274	22,592.5	54,230	7.5
35	.47030	.01590	1,834	29	849	6,975	31,637.5	17.3
40	.20561	.01035	956	19	193	4,250	24,362.5	25.8
45	.00000	.02788	744	21	0	3,667.5	20,412.5	27.4
50		.03998	723	29		3,542.5	16,745	23.2
55		.05801	694	40		3,370	13,202.5	19.0
60		.08918	654	58		3,125	9,832.5	15.0
65		.14049	596	84		2,770	6,707.5	11.3
70		.21882	512	112		2,280	3,937.5	7.7
75		.34134	400	137		1,657.5	1,657.5	4.1
80+		1.00000	263	263				

5^qx values are based on the abridged life table for Korea: 1978 - 1979 eatimated by BOS/EPB (1981 : BOS/EPB)

Table 7. Net Nuptiality Tables for Single Population for the Period of 1975-1980

Age x	$_5n_x$	$_5q_x$	s^*_x	$_5d^{s*}_x$	$_5m^*_x$	$_5L^{s*}_x$	T^{s*}_x	e^{s*}_x
Males								
0		.04022	100,000	4,022		489,945	2,571,085	25.7
5		.00547	95,987	525		478,557.5	2,081,140	21.6
10		.00435	95,453	415		476,227.5	1,602,562.5	16.7
15	.03313	.00752	95,038	715	3,125	465,590	1,126,335	11.8
20	.43307	.01080	91,198	985	39,068	355,857.5	660,745	7.2
25	.51114	.01211	51,145	619	25,826	189,612.5	304,887.5	5.9
30	.82368	.01339	24,700	331	20,072	172,492.5	115,275	4.6
35	.66314	.01609	4,297	69	2,840	14,302.5	42,782.5	9.9
40	.29560	.03122	1,424	44	408	5,990	28,480	20.0
45	.00893	.04349	972	43	8	4,732.5	22,490	23.1
50		.06620	921	61		4,452.5	17,757.5	19.2
55		.10310	860	88		4,080	13,305	15.4
60		.17319	772	134		3,525	9,225	11.9
65		.27474	638	175		2,752.5	5,700	8.9
70		.37398	463	173		1,882.5	2,947.5	6.3
75		.52941	290	154		1,065	1,065	3.6
80		1.00000	136	136				

Table 7. Continued

Age x	$_5n_x$	$_5q_x$	s_x^*	$_5d_x^{s*}$	$_5m_x^*$	$_5L_x^{s*}$	T_x^{s*}	e_x^{s*}
Females								
0		.05743	100,000	5,743		485,647.5	2,345,080	23.4
5		.00354	94,259	334		470,460	1,859,432.5	19.7
10		.00259	93,925	243		469,017.5	1,388,972.5	14.7
15	.16786	.00429	93,682	402	15,658	428,260	919,955	9.8
20	.50703	.00571	77,622	443	39,132	291,327.5	491,695	6.3
25	.77636	.00585	38,907	227	30,029	118,900	200,367.5	5.1
30	.70692	.00595	8,651	51	6,080	27,927.5	81,467.5	9.4
35	.37079	.00937	2,520	24	925	10,227.5	53,540	21.2
40	.11310	.01611	1,157	25	175	7,355	43,312.5	27.5
45	.04027	.02129	1,371	29	54	6,647.5	35,957.5	26.2
50		.03081	1,288	40		6,340	29,310	22.7
55		.04614	1,248	94		6,005	22,970	18.4
60		.07553	1,154	143		5,412.5	16,965	14.7
65		.12387	1,011	125		4,742.5	11,552.5	11.4
70		.22454	886	199		3,932.5	6,810	7.6
75		.32325	687	223		2,877.5	2,877.5	4.1
80+		1.00000	464	464				

$_5q_x$ values are based on the abridged life table for Korea:1978–1979 estimated by BOS/EPB (1981:BOS/EPB)

2) 年齡別婚姻確率 (Nuptiality rate)

婚姻表(nuptiality)의 ${}_5^nx$ 칼럼은 정확히 x歲에 도달한 사람이 x + 5歲가 되기 전에 婚姻하게 될 확률(nuptiality rate)을 나타내 준다. 이 칼럼은 初婚 年齡 pattern의 分析과 관련하여 두가지 주요한 意味를 갖는다. 하나는 婚姻이 婚姻表가 作成된 當時의 年齡別婚姻率 Schedule에에 따라 이루어 진다고 假定한다면, 어떤 年齡에 到達한 사람이 向後 5年以內에 처음으로 婚姻하게 될 가능성을 統計的으로 提示해 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_5^nx$ 値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칼럼이 各時期別로 살아 왔던 사람들의 婚姻習性(marriage habit)을 직접적으로 表現해 준다는 점이다. 本 稿에서는 硏究의 目的에 비추어 주로 후자적인 의미에서만 ${}_5^nx$ 칼럼을 고려키로 하였다.

〈圖 - 1 〉과 〈圖 - 2 〉는 앞 節에서 提示된 婚姻表上의 ${}_5^nx$ 値가 各 性別로 1925年 - 30年이후 1975-80年에 이르는 4 期間中 어떻게 변동해왔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圖 - 1 〉과 〈圖 - 2 〉를 通하여 관찰되는 男女別婚姻習性과 관련된 주요 特性을 各 時期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25-30年기간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習性과 관련된 主要特性은 ① 男女모두 婚姻의 適期를 지났다고 볼 수 있는 年齡에서도 婚姻의 確率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② 전반적으로 女子의 婚姻確率이 男子보다 훨씬 높다. ③ 婚姻하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는 10세에 도달한 경우도 婚姻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圖 - 1 〉을 보면 男子의 경우 25세에서 向後 5年以內에 婚姻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 그 이후의 年齡에서도 ${}_5^nx$ 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女子의 경우 더욱 심하다. 1925-30年기간중 女子의 婚姻가능성이 頂點에 이르는 시기는 20세가 된다. 그러나 그 以後의 年齡에서도 당시의 관념에 비추어 처음으로 婚姻適期에 들어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5세시의 婚姻確率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0세에 도달한 경우는 거의 모두가 5년 이내에 婚姻하게 됨을 〈圖 - 2 〉는 묘사해 주고 있다. 한편 〈圖 - 1 〉 과

〈圖 - 2〉를 비교해 보면 各 年齡모두 女子의 婚姻確率이 男子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그 밖에 10세에 도달한 사람들의 5年以內의 婚姻確率을 보면 男子의 경우 0.14, 그리고 女子의 경우는 무려 0.34나 되는 높은 水準에 있음을 보여준다.

(2) 그러나 이러한 婚姻 pattern은 1955-60年에 이르면 變化의 조짐을 보이기 始作한다. 1955-60年 期間中 관찰되는 변화의 조짐은 ① 婚姻確率이 가장높은 年齡의 변동 ② 特히 女子의 경우 婚姻適期를 넘어 섰다고 볼 수 있는 高年齡에서의 婚姻確率의 감소 및 ③ 早婚姻確率의 급격한 退潮現象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밖에 1955-60年期間중에 관찰되는 婚姻習性의 주요특징의 하나는 당시의 관념에 비추어 婚姻適期에 도달한 이후의 婚姻確率이 男女모두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이다. 特히 男子의 경우는 婚姻確率이 頂點을 이루던 年齡을 지난 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圖 - 1〉 및 〈圖 - 2〉참조). 1955-60年以後 婚姻確率이 頂點에 이르는 年齡은 男子의 경우 1925-30年의 25歲에서 30歲로, 女子의 경우에는 20歲에서 25歲로 옮겨지게 된다.

(3) 1970-75年 期間에 관찰되는 初婚年齡패턴의 주요한 變化의 하나는 婚姻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年齡을 지나면서 부터 年齡의 增加에 따라 婚姻確率이 급격히 감소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圖 - 1〉 및 〈圖 - 2〉에 의하면 男子의 경우 30세, 女子의 경우 25세에 이르면 5年內에 婚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男子의 경우 35세, 女子의 경우 30세를 지나면 그 確率이 급속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모양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年齡別婚姻類型이다.[28]

(4) 마지막으로 1975-80年間의 婚姻確率을 통한 初婚의 年齡 pattern을 보면, 男女모두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970-75年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類型을 보여준다. 다만, 男子의 경우 이 傾向은 女子의 경우처럼 一貫性있는 結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세에 도달한 男子의 경우 5年以內에 婚姻하게 될 婚姻確率은 從前(1955-60 및 1970-75)의 수준보다 오히려 높다.

---

28) C.R. Malaker(1973), ibid:525 - 535 ; 伊藤達也外(1977), "結婚数の将来推計(試算)", 人口問題研究, Vol. 141,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 40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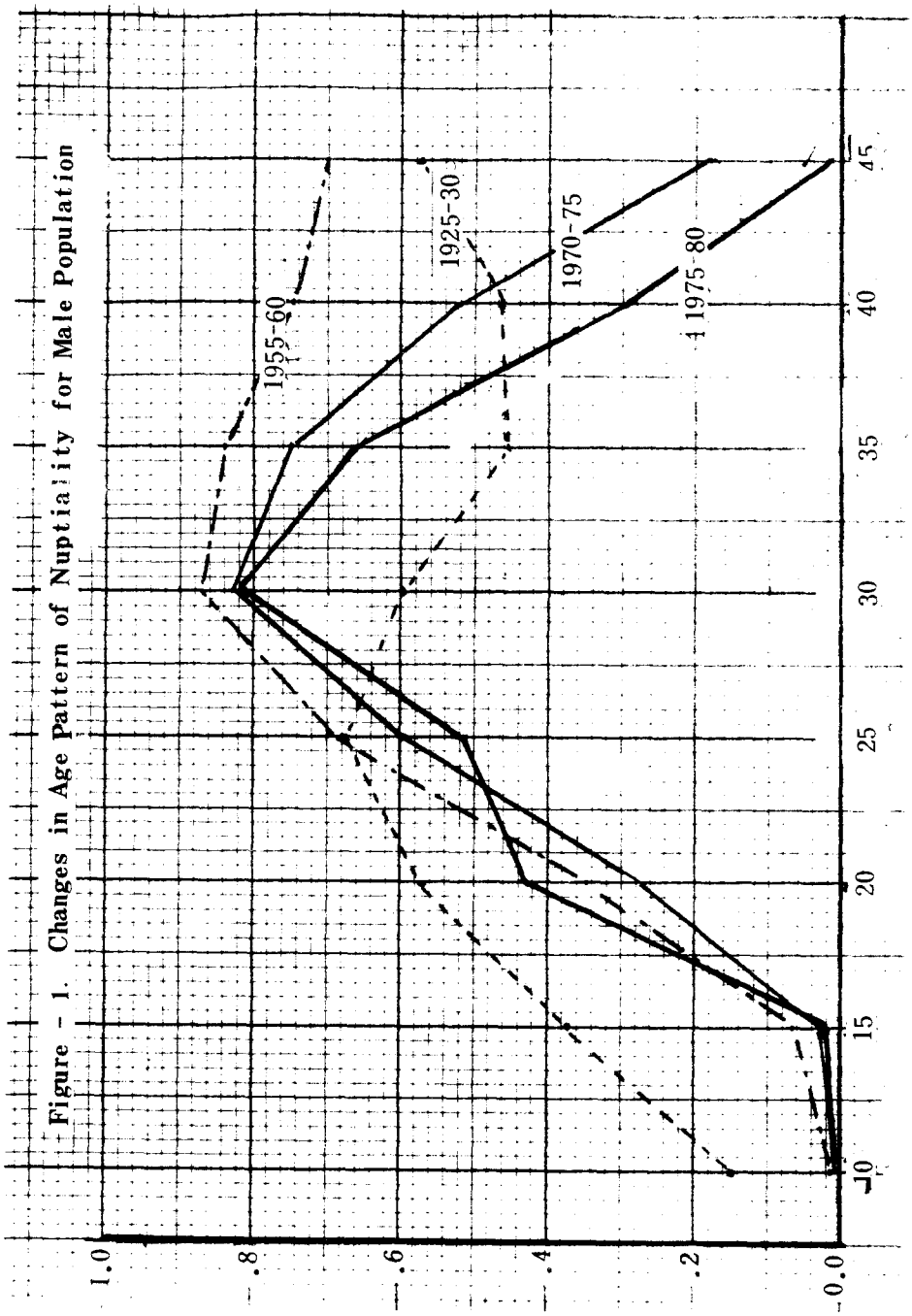

Figure - 1. Changes in Age Pattern of Nuptiality for Male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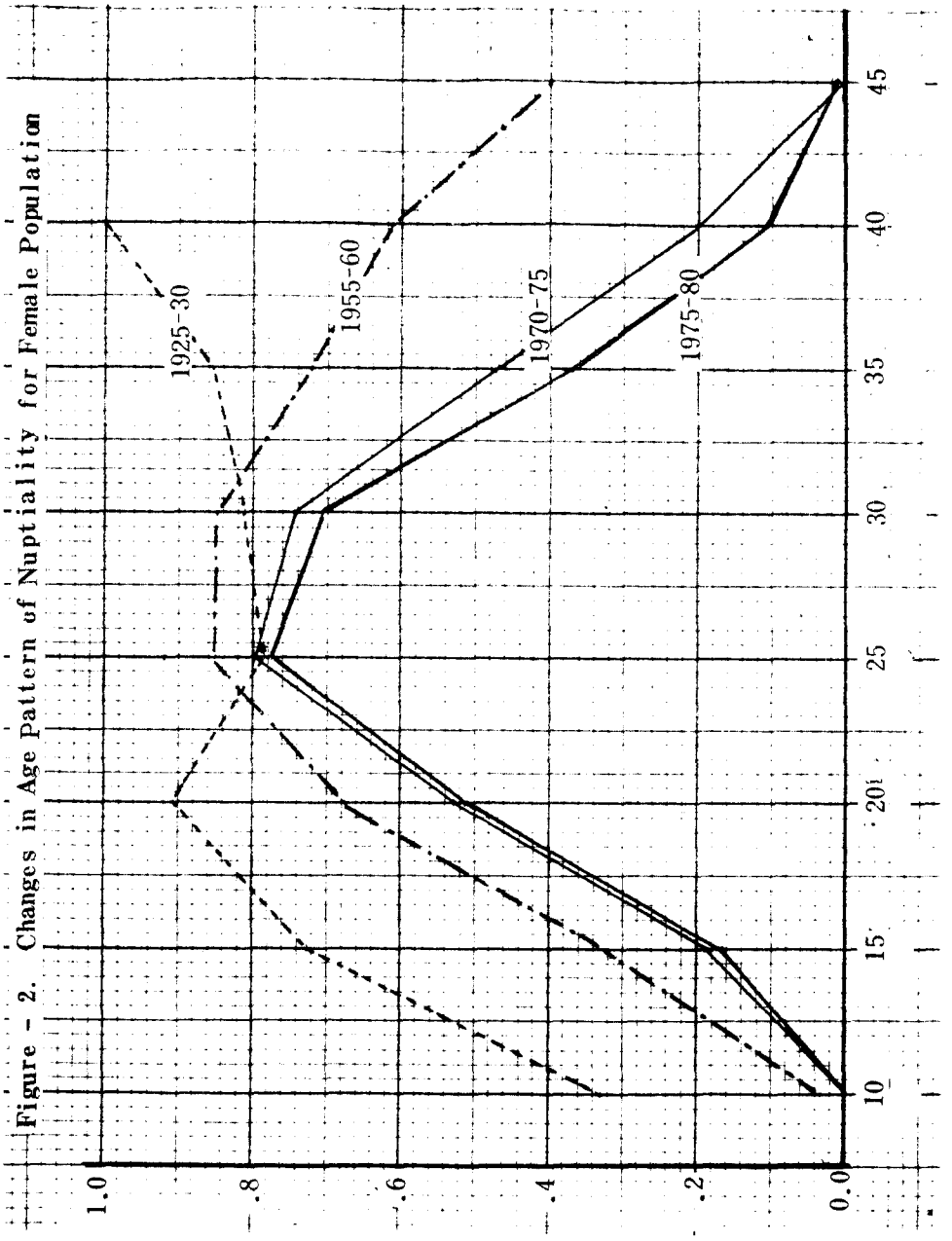

Figure - 2. Changes in Age Pattern of Nuptiality for Female Population

3) 初婚年齡

婚姻表上의 e_x^s 칼럼은 特定年齡 x 歲에 到達할 경우 未婚인 狀態로 보내게 될 平均期待年數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e_0^s 値는 婚姻表作成時의 年齡別婚姻率 schedule에 따라 사람들이 婚姻한다고 假定할 경우, 出生時期待未婚年數를 뜻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e_0^s 値는 婚姻表上에 明示된 기간중 사람들이 경험했던 平均初婚年齡을 反映하는 지표의 하나로 간주된다. 〈表 - 3〉에 提示된 簡易粗婚姻表에 의하면 1925-30, 1955-60, 1970-75 및 1975-80年의 e_0^s 値는 各各 21.27年, 26.26年, 27.53年 및 26.81年으로서 男子의 初婚年齡이 1975-80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上昇趨勢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表 - 4〉에 의하면, 女性의 경우는 同期間中 出生時平均期待未婚年數가 各各 16.85, 21.79, 24.09 및 24.50年으로서 男子와는 달리, 初婚年齡이 最近에도 계속 上昇趨勢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資料에서 볼때, 1975-80年의 男子의 出生時平均期待未婚年數는 1970-75年에 비해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이 사실은 일단 1950年代後半의 「베이비·붐」의 影響으로 인한 婚姻行態의 變動이 반영된 結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粗婚姻表는 特定한 數의 radix가 감소되는 요인으로서 婚姻만이 고려될뿐 死亡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簡易粗婚姻表上에 나타난 1975-80年의 出生時平均期待未婚年數만을 土台로 그것을 「베이비·붐」에 따른 婚姻行態의 人口學的反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簡易純婚姻表上의 e_0^{s*} 値의 最近變動을 보면, 〈表 - 5〉 〈表 - 6〉 및 〈表 -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60, 1970-75 및 1975-80年의 경우 남자는 각각 22.2, 25.5 및 25.7年으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으며, 女子역시 각각 19.0, 22.8 및 23.4年으로 上昇趨勢를 나타낸다. 이 結果는 앞서 粗婚姻表에서 관찰된 最近 男子의 出生時平均期待未婚年數의 低下現象과 相値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表 - 6〉과 〈表 - 7〉은 1970-75年에 대한 1975-80年의 男子의 出生時平均期待未婚年數의 增加幅은 女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_0^{s*} 値와 더불어 婚姻이 比較的 많이 일어나는 年齡에서의 e_x^{s*} 値는 最近의 婚姻動態를 관찰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表 - 5〉, 〈表 - 6〉 및 〈表 - 7〉에서 男子의 경우 25세, 30세, 35세, 및 40세, 그리고 女子의 20세, 25세, 30세 및 35세의 e_x^{s*} 値를 통해 관찰되는 初婚패턴을 보면 (1) 最近에 오면서 男女모두 婚姻適期를 넘기게 되면 婚姻하기 보다는 혼자살게 되

는 경향이 더욱 심화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55-60年의 경우 男子 40세, 女子 35세가 되면 未婚으로 보내게 될 期待年數가 각각 5.1年 및 5.6年으로서 앞 年齡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1970-75年에는 男子 13.7年, 女子 17.3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1975-80年에는 男子 20.0年, 女子 21.2年으로 더욱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그 밖에 婚姻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年齡(男子 : 25, 30 및 35세, 女子 : 20, 25 및 30세)에 도달한 경우도 最近에 이를수록 各 年齡에서의 期待未婚年數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은 婚姻適期가 되면 누구나 한번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종래의 婚姻意識의 漸次的인 退潮現象을 反映한다.

4) 45 歲以上의 未婚比率

婚姻表上의 T^{S}_{45} 値의 T^{S}_{0}値에 대한 比率은 年齡構造가 同一하다고 가정했을 때, 再生産期間이 끝난 후에도 婚姻하지 않고 獨身으로 보내게 되는 人口의 比率을 나타낸다. 〈表 - 3〉 ~ 〈表 - 7〉에서 提示된 婚姻表를 中心으로 관찰되는 이 比率의 변동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最近 우리나라 사람들이 45세가 지난 후에도 比率으로 남는 比率은 男女모두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해 왔으나 그 比率은 아직도 매우 낮다. 즉, 粗婚姻表를 中心으로 計算한 바에 의하면 1975-80年의 경우 이 比率은 男子 0.2%, 女子 0.3%에 불과하다. 동 기간중 純婚姻表를 土台로 계산한 比率 역시 男子 0.9%, 女子 1.5%로서 그 比率이 10%이상이나 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2) 또한 이 比率의 변동을 性別로 比較해 보면, 최근에 오면서 종래와는 달리 女性의 未婚比率이 男子에 比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3) 通常 과거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이 比率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男子의 경우만은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즉 1925-30年의 45歲時 男子의 미혼비율은 粗婚姻表상에서 0.15%로 나타나고 있다. 이 比率은 1955-60年의 0.06%나, 1970-75年의 0.1%보다 훨씬 높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변동의 方向을 제시해 준다기 보다는 1925-30年의 경우 다른 기간에 비해 어떤 특수한 社會的與件이 作用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Ⅳ. 要約 및 結論

以上의 諸結果를 綜合해 보면 1925-80年에 이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初婚年齡 pattern의 變動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1925-30年以前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皆婚意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 初婚의 年齡 pattern을 보면 대체로 피라밋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대해, 1925-30年 우리나라 사람들의 初婚年齡 pattern은 高原現象을 보여주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대개의 경우 婚姻은 그 社會에서 普遍的으로 婚姻의 適期라고 看做되는 年齡을 中心으로, 그 年齡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다가 頂點이 되는 時點이후에는 감소되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1925-30年의 우리나라에서는 頂點이 되는 年齡以後에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婚姻이 이루어져 왔다.

(2) 그러나 이러한 初婚의 年齡 pattern은 1955-60年을 起點으로 점차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라밋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으며, 1970年以後는 완전한 피라밋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婚姻動態的 側面에서 1955-60年期間은 또 하나의 중요한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55-60年은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婚姻이 많이 일어났던 소위 「婚姻·붐」을 경험했던 시기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婚姻·붐」은 대체로 戰後 歸還將兵들에 의해서 主導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것은 特히 男子의 경우 30세이후의 高年齡層에서의 婚姻率이 1970-75年은 물론 1925-30年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높았다는 사실에서 유추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1950年代 후반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주요한 人口學的 現象이었던 「베이비·붐」도 주로 이러한 「婚姻·붐」이 主原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1970年代 以後 우리나라 사람들의 婚姻行態와 관련된 주요한 특징은 婚姻의 適期라고 생각되는 年齡을 지난 비교적 高年齡層사람들의 경우, 종래와는 달리 婚姻하려고 하기 보다는 獨身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

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年齡別初婚確率이나 年齡別期待未婚年數의 변동에서 주로 관찰되나 아직도 45세이상의 未婚者比率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最近의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985-90年경에는 이 比率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4) 1950年代 후반에 경험했던「베이비·붐」現象이 最近의 婚姻動態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本 硏究에서는 直接的으로 관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本 硏究가 주로 센서스資料를 中心으로 한 婚姻動態의 記述에 그칠 수 밖에 없었던 硏究方法上의 제약에서 비롯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本 分析을 통하여「베이비·붐」이라는 人口學的 現象에 대하여 우리나라사람들이 婚姻行態와 관련하여 反應하고 있는 측면을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1970-75年과 1975-80年의 年齡別婚姻動態를 比較해 볼 때, 特히 男子의 경우 1975-80年期間中 20-24세 年齡에서 婚姻率이 훨씬 높으며, 다른 年齡에서의 減少現象과는 달리 30-34세 年齡의 婚姻率水準에 거의 變動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示唆해 준다. 이는 婚姻適齡期에 도달한 兩性間에 數的 不均衡이 있을 경우 marriage squeeze를 의식한 女性쪽에서 配偶者選擇과 관련하여 종래의 pattern과는 다른 年齡의 配偶者를 선택한 結果라고 解釈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本 硏究와 같은 記述的인 硏究에서는 어떤 성급한 結論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問題는「베이비·붐」과 婚姻年齡 pattern의 適應間의 因果的 關係를 다루는 다른 硏究에서 体系的으로 分析한 연후에 어떤 結論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附 錄〉

1。年齡別婚姻率의 推定節次

本 硏究에서 婚姻率(central marriage rate)은 다음의 節次를 거쳐 推定되었다.

1) 두센서스年間未婚人口比率의 推定

① 5年間隔으로 실시된 인접한 두 센서스資料를 이용하여 5歲 階級別 未婚人口比率을 계산한 다음,

② 이를 土台로 두 센서스年間에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未婚人口比率을 추정한다. 이 未婚人口의 比率은 :

$$ {}_5S_x^{(t \sim t-5)} = {}_5S_{x-5}^{(t \sim t-5)} \cdot \frac{{}_5S_x^t}{{}_5S_{x-5}^{t-5}} $$ 에 의해 推定되었다.

여기서 t : 두센서스중 t 년도에 실시된 센서스년도

t-5 : t 년보다 5 년앞서 실시된 센서스년도

${}_5S_x^t$: t 년도에 실시된 센서스에 집계된 x 세이상 x + 5세 미만에 속하는 人口의 未婚比率

${}_5S_{x-5}^{t-5}$: t - 5 년도에 실시된 센서스에 집계된 年齡 x - 5 세 이상 x 세미만에 속한 人口의 未婚比率을 의미함.

※ 그밖에 두 센서스 年間에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婚姻할 수 있는 가장 젊은 年齡階級, 예컨대 10 - 14 歲人口의 未婚比率은 그 연령계급에는 전혀 婚姻이 발생하지않았다고 보아 100.0으로 가정 하였음.

2) 婚姻確率 (nuptiality rate) 과 未婚率 (marriage rate)의 推定

① 앞의 ②단계에서 推定된 두 센서스年間의 未婚比率은 해당연령계급의 中央時點의 未婚比率을 의미한다. 따라서 婚姻確率을 推定하기 위해서는 이를 各 年齡階級의 始作時點의 未婚比率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 未婚比率은 interpolation method를 적용하여 求해질 수 있다. Interpolation은 King Kerup이나 Sprague의 graduation index를 적용하여 求할 수 있으나, 本 稿에서는 편의상 linear interpolation method를 적용하였다.

② 이렇게 求해진 未婚比率資料를 토대로 各 年齡階級의 始作時點에서 다음 年齡階級의 年齡에 도달할 때 까지의 婚姻確率은 Shryock등이 제시한 合式:

$$n_x = \frac{Sx - Sx+5}{Sx}$$ 에 의해 추정된다.

여기서 Sx : 정확히 年齡 x歲에 도달한 女子(혹은 男子)의 未婚人口比率

Sx+5 : 정확히 年齡 x + 5歲에 도달한 女子(혹은 男子)의 未婚人口比率을 의미함.

③ 各年齡에서의 未婚確率이 求해지면 年齡別婚姻率(age-speific central marriage rates)은 婚姻確率과 婚姻率間의 關係式:

$$n_x = \frac{10 \cdot 5N_x}{2 + 5 \cdot {}_5N_x}$$ 에 의해 쉽게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 n_x : 정확히 年齡 x歲에 도달한 특정한 性의 人口가 x + 5歲가 되기까지 婚姻할 確率

${}_5N_x$: 특정한 年度에 x歲이상 x + 5歲미만의 人口에서 일어나는 婚姻率

2. 婚姻表의 作成

① 未婚比率資料를 利用하던, 年齡別婚姻率資料를 이용하던 관계없이 年齡別婚姻確率(${}_5n_x$)이 求해지면 粗婚姻表上의 各 칼럼은 다음과 같은 函數關係속에서 쉽게 求해질 수 있다. 즉,

$${}_5m_x = Sx \cdot {}_5n_x$$

$$Sx+5 = Sx - {}_5m_x = Sx(1 - {}_5n_x)$$

$${}_5L_x^s = 2.5(Sx + Sx+5)$$

$$_{50-x}T_x^s = \sum_{x=15}^{45} {}_5L_x^s$$

$$_{50-x}e_x^s = {}_{50-x}T_x^s / Sx$$

② 한편 純婚姻表에서 各 칼럼은 먼저 純婚姻確率(${}_5n_x^*$)을 求해야 하는바, 이는 粗婚姻確率(${}_5n_x$)과의 관계식 : $n_x^* = n_x(1-.5q_x)$을 이용해서 추정되었으며, 여기서 求해지는 n_x^*를 토대로 純婚姻表의 각 칼럼은 粗婚姻表上의 각 칼럼간의 관계식을 원용함으로써 쉽게 求해질 수 있다.

③ 한편 純婚姻確率을 推定하는 과정에서 要求되는 q_x 値는 1955-60年[29]과 1975 - 80年[30]의 경우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한 生命表에서, 그리고 1970 - 75年의 경우는 崔仁鉉 等[31]이 작성한 生命表上의 q_x 値를 適用하였다.

---

29) 고갑석, 김일현 (1964), "韓国人의 簡易生命表 : 1955-1960", 한국통계월보, Vol.6:12-26

3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韓国人의 生命表 : 1978-79

31) 최인현, 공세권, 이영훈 (1972), 최근한국의 사망추이에 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參 考 文 献

Agawala, S.N. (1962), Age at Marriage in India, Allahabad: Kitab Mahal

Bogue, D.J. (1969), Principles of Demography,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Coale, A.J. (1971), "Age Pattern of Marriage," Population Studies, Vol. 25, No. 2.

Coale, A.J. and C.Y. Tye(1961), "The Significance of Age Patterns of Fertility in High Fertility Population,"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39, No. 4

Eshleman, J.R. (1978), The Family: An Introduction, 2nd Ed. Allyn & Bacon, Inc. (Boston)

Freedman, R. (1973),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An Annotated Bibliography,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Goode, W.J. (1964), The Family, Prentice-Hall

Hajnal, J. (1953),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 Single," Population Studies, Vol. 7, No. 2

Kwon, T. H. (1973), Population of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er/Seoul National University

Malaker, C. R. (1977), "Construction of Nuptiality Tables for the Single Population in India: 1901-1931," Demography, Vol. 10, No. 4

Matras, J. (1977), Introduction to Population: A Sociological Approach, Prentice-Hall

Mertens, W. (1965), "Methodological Aspects of the Construction of Nuptiality Tables," Demography, Vol. 2, No. 3

Palmore, J.A. and A.B. Marzuki (1969), "Marriage Patterns and Cumulative Fertility in West Malaysia: 1966-1967," Demography, Vol. 6, No. 4

Retherford, R. (1978), Nuptiality Table, unpublished mimeograph,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Shryock, H. et al (1976), Methods and Materials for Demography: Condensed Edition by Edward G. Stockwell, Academic Press, Inc.

Smith, P.C. (1978), "Index of Nuptiality: Asia and the Pacific," Asian and Pacific Census Forum, Vol.15, No.2,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Van de Walle, E. (1972), "Marriage and Marital Fertility," D. Glass and R. Revells (eds), Population and Social Change, Edward Arnold (London)

家族計劃研究院, (1978), 人口 및 家族計劃 統計資料集, Vol.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0), 韓國人의 生命表 : 1978-79

_____, (1981), 인구동태표본조사보고서

고갑석 · 김일현 (1964), "韓國人의 簡易生命表 : 1955-1960", 한국통계월보, Vol.6:12-26

이홍탁 · 한대우 (1978), 初婚年齡과 出產力間의 相關關係에 관한 硏究, 가족계획연구원

최인현, 공세권, 이영훈 (1972), 최근 한국의 사망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伊 達也外 (1977), "結婚數の將來推計" 人口問題硏究, Vol.141, 日本厚生省人口問題硏究所 : 40-52

[English Abstract]

A Demographic Study of Changes in Nuptiality patterns in Korea

by Soon Choi*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technique for construction of nuptiality tables using proportion single of synthetic cohorts between times at two consecutive censuses, and to observe patterns of change in marriage habit of Korean through the nuptiality tables for single population from 1925 to 1980. In this paper abridged gross and net nuptiality tables for single population of Korea have been constructed for the four quinquinial period: 1925-1930, 1955-1960, 1970-1975, and 1975-1980. Significant time trend has been observed in the nuptiality rates among the single population. The major findings observed in each table are as follows;

(1) During 1925-1930, the rates are initially small, but increase rapidly until they reach a maximum at ages 25-29 for bachelors and 20-24 for spinsters, following which they are still in high level.

(2) During 1955-1960, the age pattern of nuptiality begins to change; for female population, the rates increase rapidly in the same pattern as in 1925-1930 untill they reach the highest level at ages 25-29, after which they gradually decline. During the period, how-

* Department of Sociology, Dong A Univr University

ever, there were an unprecedented high level of marriage rates for male population at a relatively later ages.

(3) During 1970-1975, Korea had experienced a transition in marriage habits; at this times, nuptiality rates for both sexes showed the same pyramid shaped patterns as in western countries as age increases. The mean ages at marriage for both sexes also reached the highest level of 27.5 years for males and 24.1 years for females.

(4) During 1975-1980, the age patterns of nuptiality showed almost the same patterns as in 1970-1975. In the later age group, however, age-specific marriage rates for both sexes greatly declined compared to the level of 1970-1975, while the rate in age group of 20-24 for male population greatly increased.